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23)(1/27/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1 장 온갖 좋은 은사들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구함, 2 절

히 1:3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 20:7-9 -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마 28:19-20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 오직 주님만이 홀로 지극히 높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전능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고 총만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만 온갖 즐거움과 위로가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총만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만물 위에 가장 높이 들리셔서 지극히 영화로우십니다. 주님 안에는 온갖 선한 것들이 과거에도 온전히 존재하였고, 지금도 온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온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뵈옵고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주께서 내게 그 어떤 것을 주시고, 주님 자신에 관하여 그 어떤 것을 계시하시거나 약속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내게 너무나 보잘것없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모든 은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안식할 수도 없고 온전히 만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마음 중의 하나는 ‘오직 주님’의 마음일 것이다.

(1) ‘오직 주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나의 구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요 14:6 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행 4:12 에서,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신앙이다.

(2) ‘오직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며, 진정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믿는 마음이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는 믿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작은 일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뢰로서의 믿음은 약할 때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평안한 때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며 고난이 닥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을 찾고 붙잡는 경향도 나타난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시며, 도움이신 줄 굳건히 믿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간다. 다윗은 처절한 광야 도피 생활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고, 아무 것도 붙잡을 것 없는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버티며

나아갔다. 다윗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더욱 ‘오직 주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을 것이다. 우리는 다윗이 부른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가 가졌던 ‘오직 주님’의 마음과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시 18:1-3 -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 20:7-9 -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3) ‘오직 주님’의 마음은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마음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 28 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신 28:1-2 - 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는데, 제자화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 마 28:19-20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라는 명령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실 맞는 것 보다 맞지 않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고, 말씀대로 하면 무엇인가 일이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 5:39)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원리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어렵게 생각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복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

‘오직 주님’의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힘과 능력임을 믿는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며 진정한 복의 길인 줄을 믿는가? 이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세상의 소리, 풍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3. 미국 내에서 자행되는 온갖 죄와 타락의 모습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들, 마약, 총기, 인종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쳐지고, 정화되며, 치유받아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